

**Renishaw, 터닝 및 복합 가공 분야를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공구 세팅 솔루션 확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술 기업, Renishaw가 EMO Hannover 2019에서 새로운 APCS-45 공구 세팅 프로브를 출시한다. 올해 초에 출시된 [APCA-45](https://www.renishaw.co.kr/ko/apca-45-tool-setting-probe--44312)를 보완하는 신제품 APCS-45는 제한된 제어 옵션을 갖는 기계에 장착할 수 있도록 대체 보호 스타일러스 커버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선반 및 복합 가공기의 열악한 가공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신제품 APCS-45는 터닝, 그루빙, 스레딩 및 보링 공구와 같은 폭넓은 공구 세팅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CNC 기계 생산성 개선 요구에 따라, 현대 제조업체에게 자동화된 지능형 공정 제어가 핵심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구 세팅이나 파손 검출과 같은 작업의 자동화는 수동 개입 필요성을 줄여주고 기계 가동 시간을 늘려준다.

새로운 APCS-45 공구 세팅 프로브를 사용하여 제조업체들은 터닝 및 복합 가공 분야의 공구 측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은 초기 공구 세팅, 공구 교체 사이클, 공구 마모, 공구 파손, 열 변위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스타일러스 커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설계 기능 덕분에 APCS-45는 매우 열악한 가공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한다. 커버를 확장/수축하는 공압 드라이브가 탑재된 APCA-45와 달리, APCS-45에서는 커버가 스프링 장치를 사용해서 수축되기 때문에 CNC 컨트롤에서 필요한 출력(M-code)이 하나 더 적다는 이점이 있다. 다른 특징으로는 컴팩트한 SUS 본체, 내장된 에어 블리드, 선택 품목인 공구 청소용 에어 블래스트 등이 있다.

EMO Hannover 2019(9월 16일 – 21일, 홀 6, 스탠드 D48)에서 Renishaw 부스를 방문하면 APCS-45 공구 세팅 프로브가 불량률을 줄이고 품질 개선 및 생산량 증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끝-